

소비

서울의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로 12개월만의 하락세를 보이는 등 경기악화가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월 백화점 판매액은 8,587억원(55.6%), 대형마트 판매액은 6,856억원(44.4%)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많은 판매를 보인 것은 백화점의 경우 패션 용품이 52.6%, 대형마트는 식품 59.0%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및 강동구가 1위, 그 다음으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울의 8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포함세를 이어가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 취업자 수 증가, 고용률 하락, 실업률 포함 등 취업시장이 지난달에 이어 현상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청년취업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 연령별 취업자 간의 양극화 현상이 이어져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물가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으로 6개월 연속 2%대를 나타냈다. 상승세를 보인 항목은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필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가 1.2% 상승, 과일과 같은 신선식품은 3.1% 상승하였다.

타 품목에 비해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신선식품은 타 품목에 비해 낙폭이 커 물가 안정화를 위해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도시의 물가지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물가는 전국에 비해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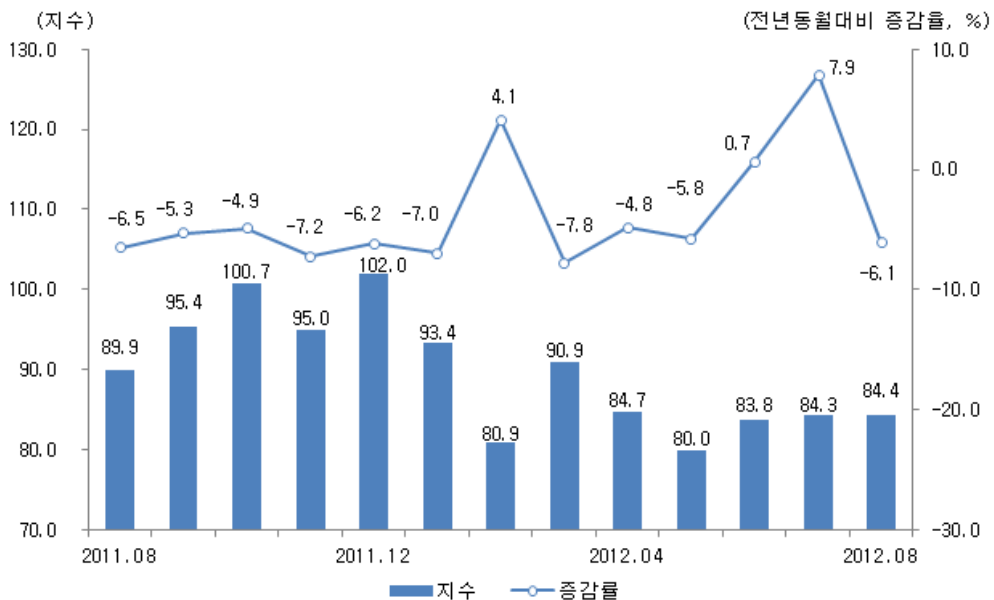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상승폭이 둔화되어 4개월 연속 포함세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과 매수시장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 지역 특히 강남3구, 유형별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였다.

| 생 · 산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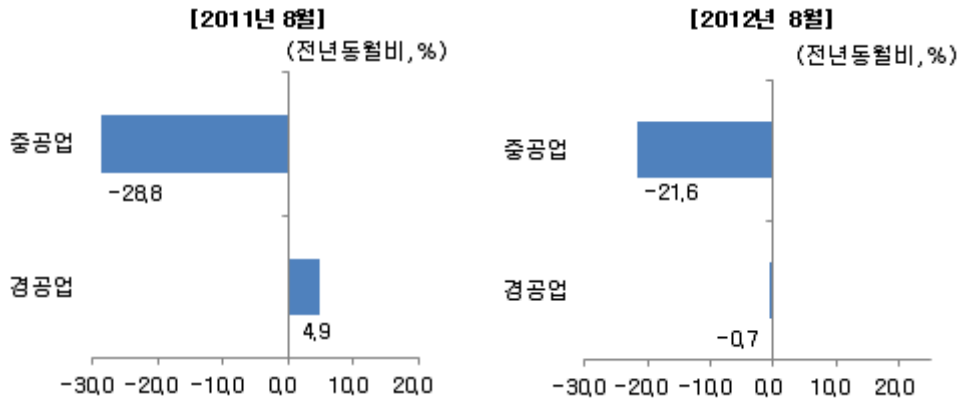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2개월만에 마이너스로 반등

- 서울의 8월 산업생산지수 82.4(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6.1% 감소
-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21.6% 감소, 경공업부문 전년동월대비 0.7% 감소
- 전년동월대비 섬유제품(24.0%), 의복 및 모피(3.2%) 등은 증가하였으나, 가죽 및 신발(-36.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21.5%), 전기장비(39.0%), 기계장비(-21.1%) 등에서 감소
- 중공업 및 경공업의 동시 감소로 큰 폭으로 하락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산업생산(중공업, 경공업) 증감률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8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43.5(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0.3% 증가
- 제조업 생산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자동차(-19.4%), 기계장비(-8.7%)등은 감소반도체 및 부품(11.5%), 화학제품(6.5%) 등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임대(-2.9%), 금융보험(-0.6%) 등에서 감소, 보건, 사회복지(6.1%), 출판영상·방송통신(1.5%) 등의 증가로 0.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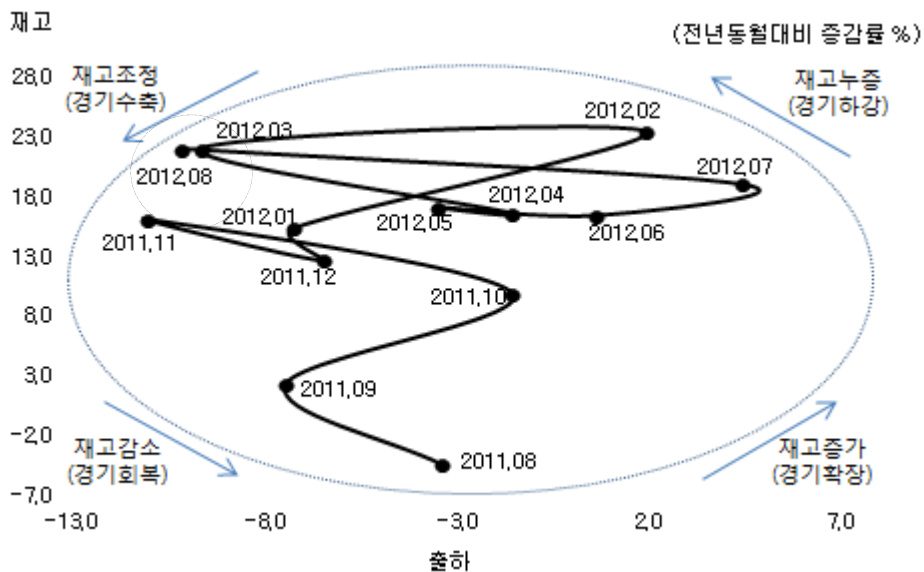
| 출하 · 재고 순환 |

서울의 8월 제조업 재고누증 단계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8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8월 재고지수는 191.1(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22.3% 증가
 - 서울의 8월 출하지수는 79.1(2005=100.0)로 전년동월대비 10.1% 감소
 -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재고누증 단계로 경기하강기라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 소 · 비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백화점 중심으로 감소

■ 서울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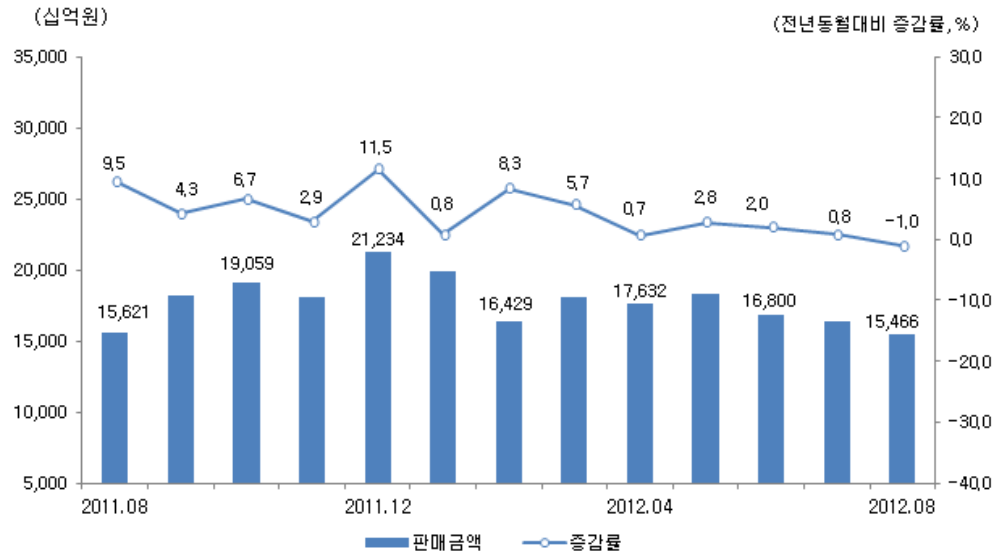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서울지역 대형종합소매업 판매액은 1조5,44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 전년동월 대비 백화점은 0.4% 증가, 대형마트는 3.0% 감소
- 품목별 판매는 패션용품이 34.7%인 5,354억원, 식품이 34.6%인 5,350억원, 생활용품이 18.9%인 2,922억원을 판매

■ 서울의 8월 백화점의 판매순위 1위는 패션용품, 대형마트는 식품

- 백화점 판매액은 8,587억원(55.6%), 대형마트 판매액은 6,856억원(44.4%)으로 집계
- 백화점 1개점 평균 매출액은 306.7억원이며, 대형마트는 92.6억원임
- 백화점 판매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패션용품(52.6%)이며, 대형마트는 식품(59.0%)로 집계
- 권역별 판매액은 4권역(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35.4%인 5,472억원 판매, 3권역(동작, 관악, 영등포, 금천, 구로, 양천, 강서), 1권역(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순
- 경기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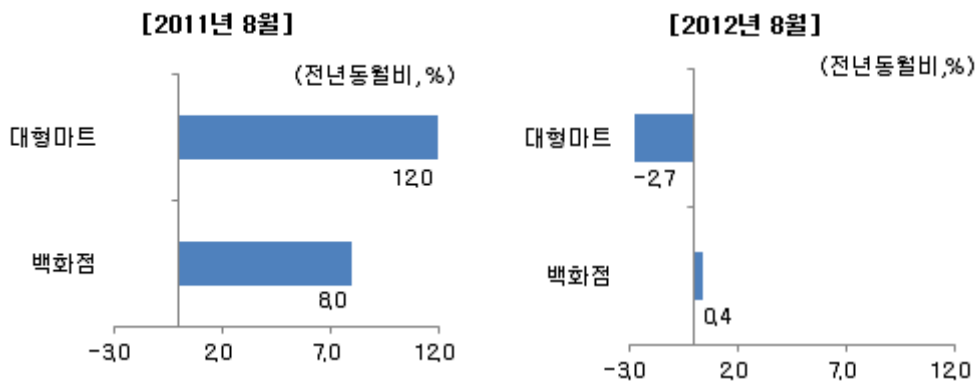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1.8%, 대형마트는 0.9% 각각 감소
- 유형별로는 컴퓨터, 가구 등 내구재 3.5% 증가,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4.2%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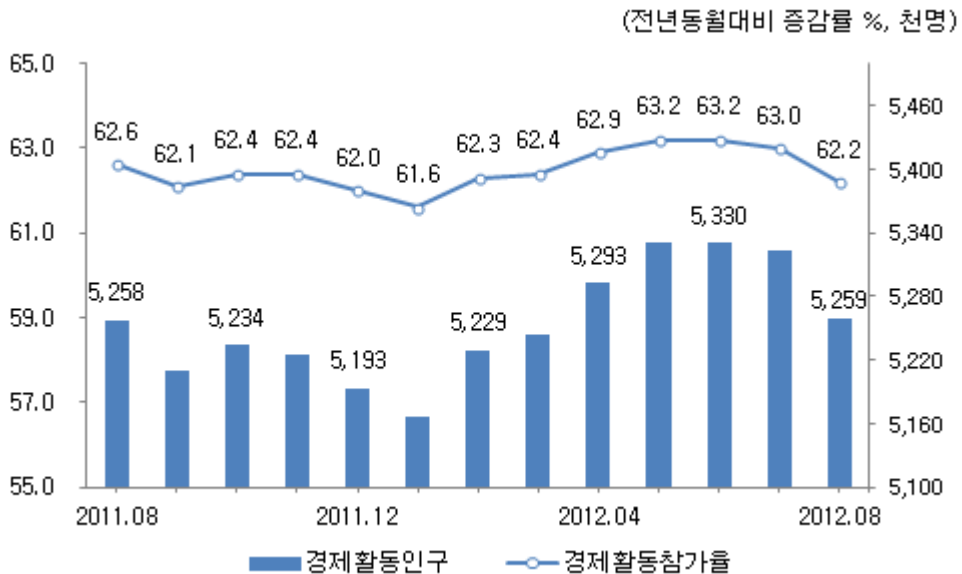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 서울의 8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15세 이상 인구는 8,46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천명(0.7%)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25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0%)이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3,2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천명(1.9%)이 증가

■ 전국의 8월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상승

- 전국의 8월 15세이상인구는 4,16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6천명(1.3%)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2,562만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6천명(1.4%)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자는 50.0%로 전년동월과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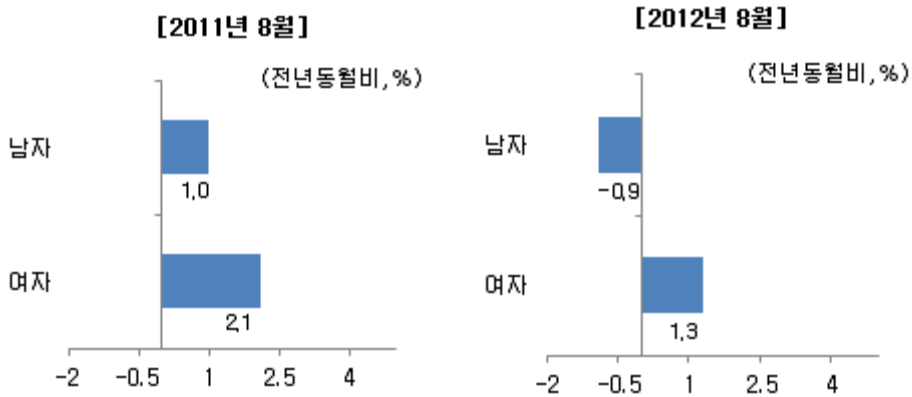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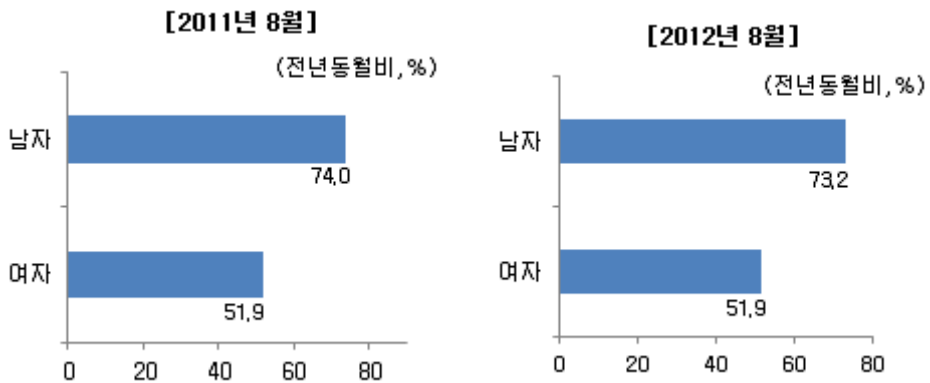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추이

■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경제활동참가율 남자 하락, 여자 상승

- 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2,996천명, 여자는 2,3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0% 하락, 여자는 1.7%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남자는 73.5%, 여자는 53.1%로 전년동월대비 남자, 여자 각각 0.8%p 하락, 0.3%p 증가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인구 증감율



〈그림〉 서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 취·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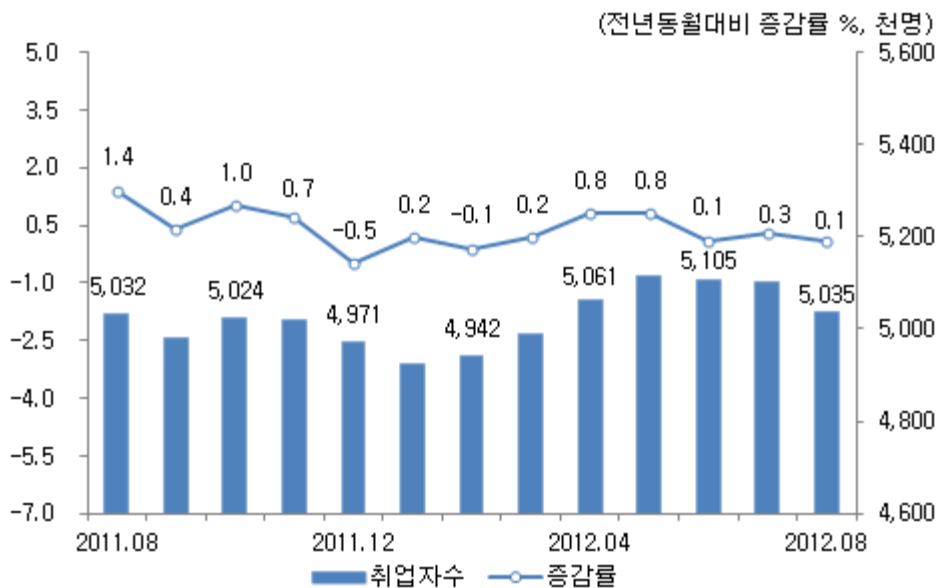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청년 취업자 수 7개월 연속 감소

■ 서울의 8월 여성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취업자는 5,03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1%)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46천명, 여자는 2,18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7천명(-0.6%)이 감소한 반면, 여자는 20천명(0.9%)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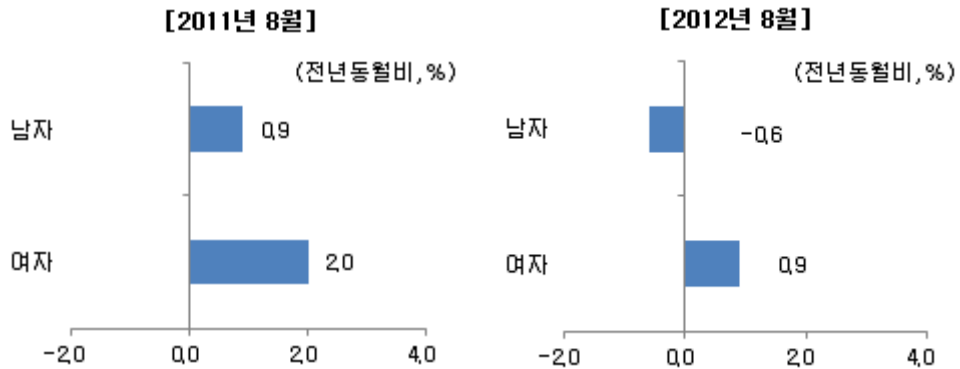
■ 전국의 8월 남, 녀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전국의 8월 취업자는 2,48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4천명(1.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49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5천명(1.6%) 증가하였고, 여자는 1,036만1천명으로 13만9천명(1.4%)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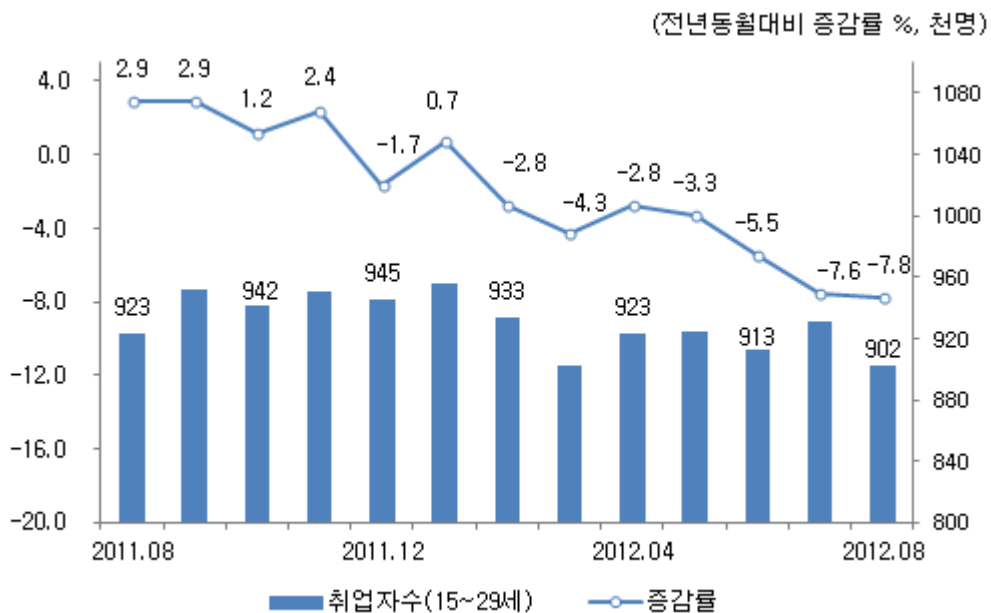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의 성별 취업자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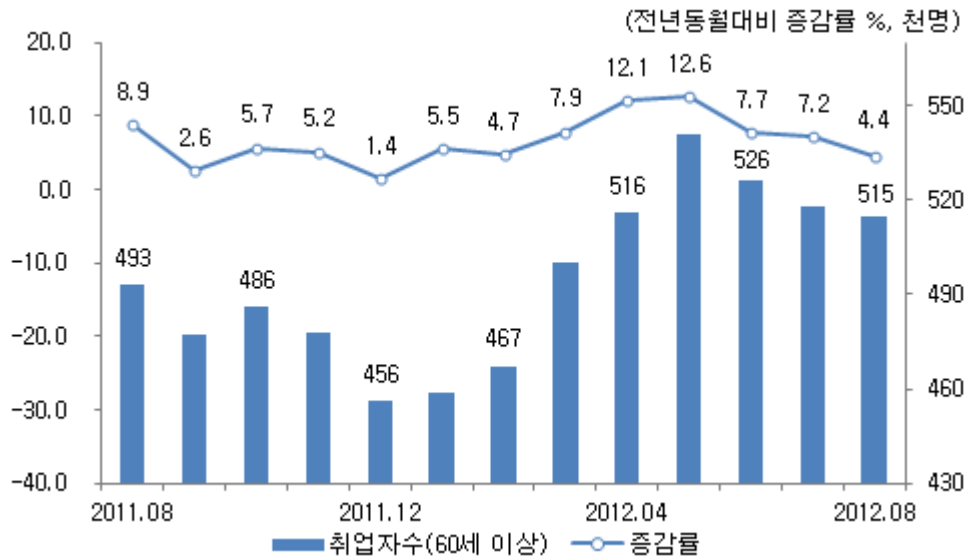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감소,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 서울의 8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서울의 8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4%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고령층의 취업률이 꾸준히 증가, 반면 청년층 취업자 감소로 연령별 취업자간 양극화 현상 지속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15세~29세) 추이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고령층 취업자(60세 이상) 추이

■ 산업별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 건설업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6.9%), 건설업 22천명(-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4천명(-2.9%), 제조업 6천명(-1.1%), 도소매·음식숙박업 2천명(-0.1%)은 각각 감소
-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8천명(2.9%)은 증가

■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증가, 서비스·판매종사자 감소

-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천명(28.7%), 사무종사자 57천명(5.7%)이 각각 증가
- 관리자·전문가 31천명(-2.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6천명(-1.1%), 서비스·판매종사자 10천명(-0.8%)은 각각 감소

■ 종사상지위별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4천명(-2.2%)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86천명(3.7%)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63천명(-5.3%), 일용근로자는 9천명(-2.2%)이 각각 감소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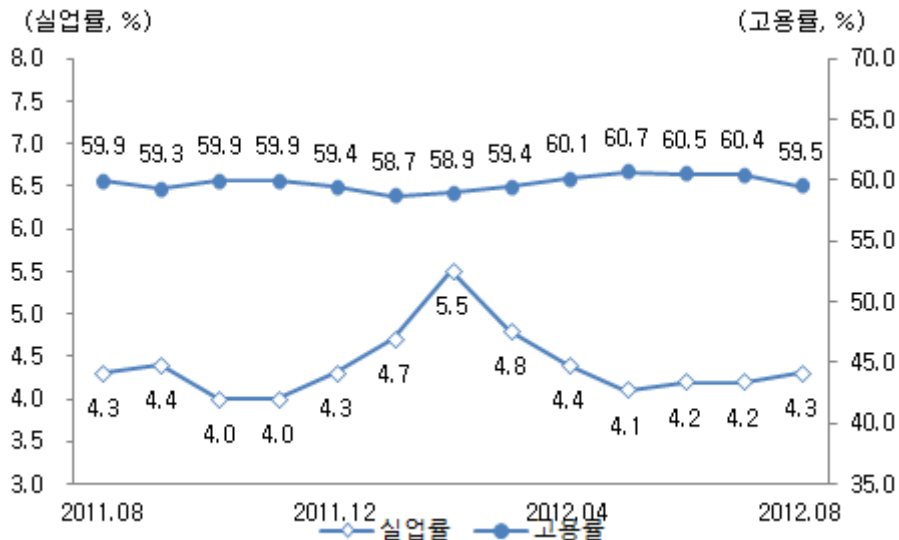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하락, 실업률 보합

■ 서울의 8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8월 고용률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8%로 전년동월대비 0.6%p, 여자는 49.9%로 0.2%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59.5%로 전국(59.7%)에 비해 0.2%p 낮음

■ 서울의 8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8월 실업자는 2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1.1%)이 감소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과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반면, 여자는 3.8%로 0.3%p 상승
- 서울시 실업률은 4.3%로 전국(3.0%)에 비하여 1.3%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물 · 가 |

서울의 8월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2개월 연속 1%대 시현

■ 서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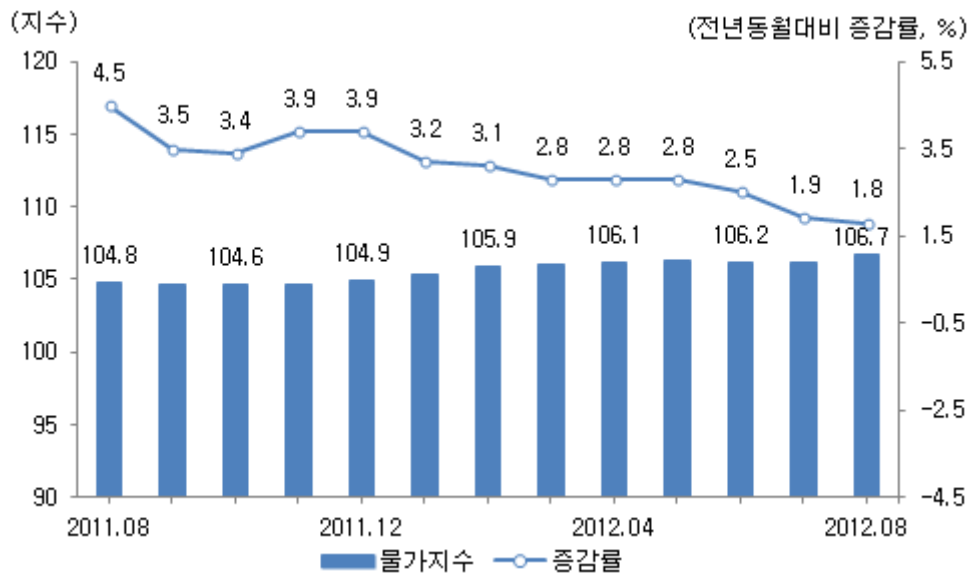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6.7(2010년=100.0)로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1.8% 각각 상승
- 상품은 전년동월대비 2.0% 상승, 그 중 전년동월대비 1.2% 하락, 공업제품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서비스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그 중 집세는 3.9%, 공공서비스 1.5%, 개인서비스 0.9% 각각 상승

■ 서울의 8월 생활물가지수 1.2%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1.9% 하락

- 소비자들의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는 1.2%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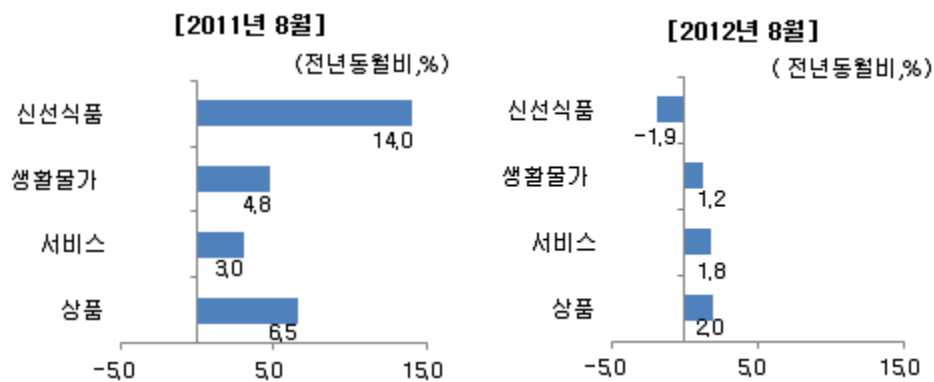
■ 전국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대비 16개 광역시 모두 상승

- 전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3(2010년=100)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상승하여 2009년 7월(1.6%) 이후 처음으로 1%대를 시현
- 16개 광역 시도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서울, 전남, 제주 0.6~0.8%씩 상승, 부산, 대구 등 10개 시도는 0.4~0.5%씩 상승
- 특광역시 제외 30개 도시별로 전월과 비교하면, 여수는 엑스포 기간이 끝남에 따라 시내버스료 유료화 등의 영향으로 1.3% 상승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2005=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그림〉 서울의 소비자 물가 동향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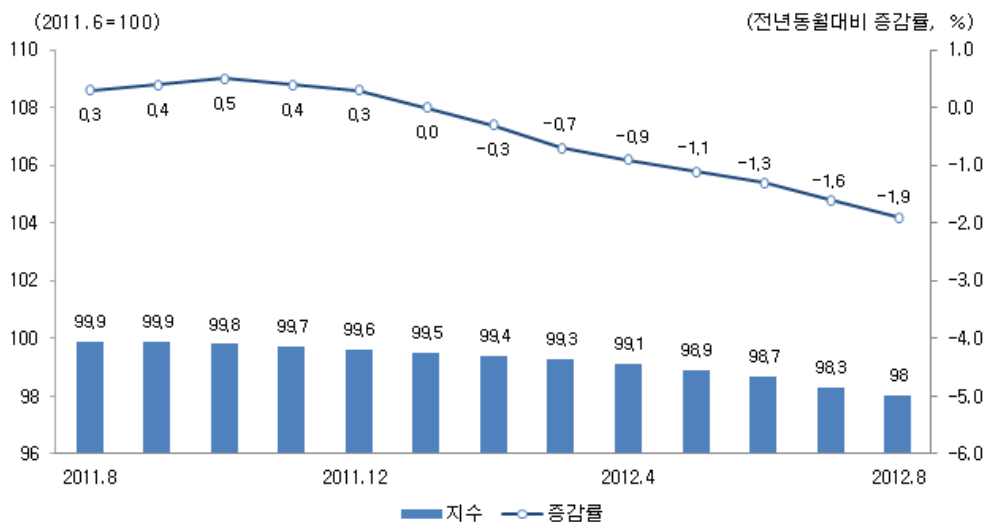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11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의 8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확대되며 종로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0.3% 하락
- 주택유형별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보합인 반면, 아파트는 전월대비 0.5% 하락

■ 전국의 8월 주택매매가격 매매거래 부진이 지속되며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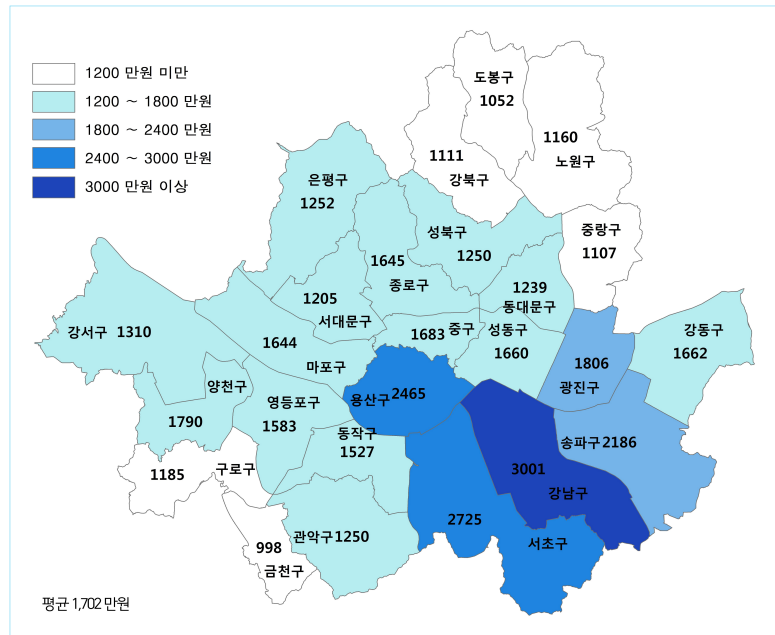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철로 매매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월대비 0.1% 하락하여 2개월 연속 하락세
- 수도권은 하락폭이 확대되어 전월대비 0.3%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보합, 기타지방은 전월과 동일하게 0.1%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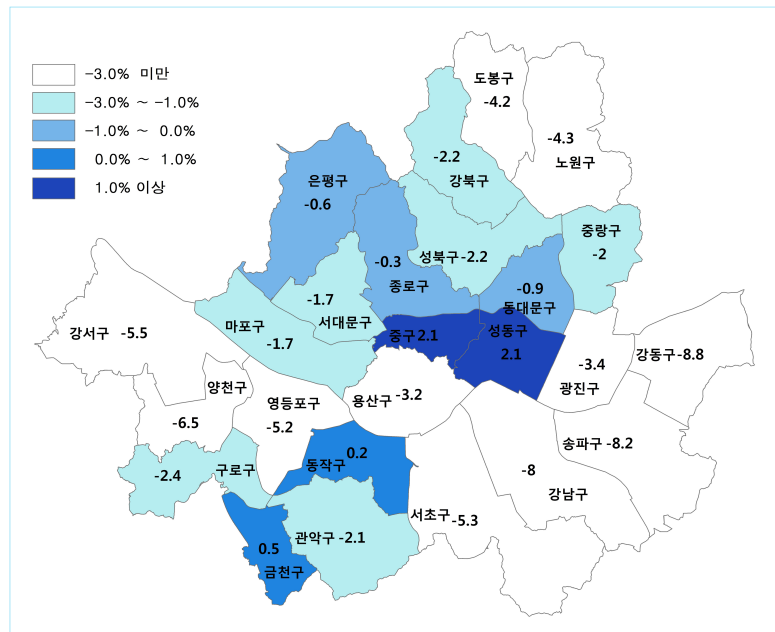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에서 상승한 반면 노원구와 용산구 등에서 주로 하락하며 전월대비 0.2% 하락**
 - 노원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수요자들의 매매거래 위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근 별내 신도시 신규입주 단지의 영향으로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세가 이어지며 전월대비 0.5% 하락
 - 용산구는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 확대와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급매물 조차도 거래가 어려운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0.3% 하락
- **강남지역은 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하락하며 전월대비 0.4% 하락**
 - 서초구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추진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여 전월대비 0.7% 하락
 - 강남구는 양도세 중과 개선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수세 회복이 어려운 모습이며 전월대비 0.7% 하락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평균 1701.8만원으로 전월대비(1714.1만원)대비 하락하여 18개월 연속 하락세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모두 7개월 연속 하락하였고 강남구(3,001만원), 서초구(2,725만원), 용산구(2,465만원), 송파구(2,186만원), 광진구(1,806만원), 양천구(1,79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998만원), 도봉구(1,052만원), 중랑구(1,107만원), 강북구(1,11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매매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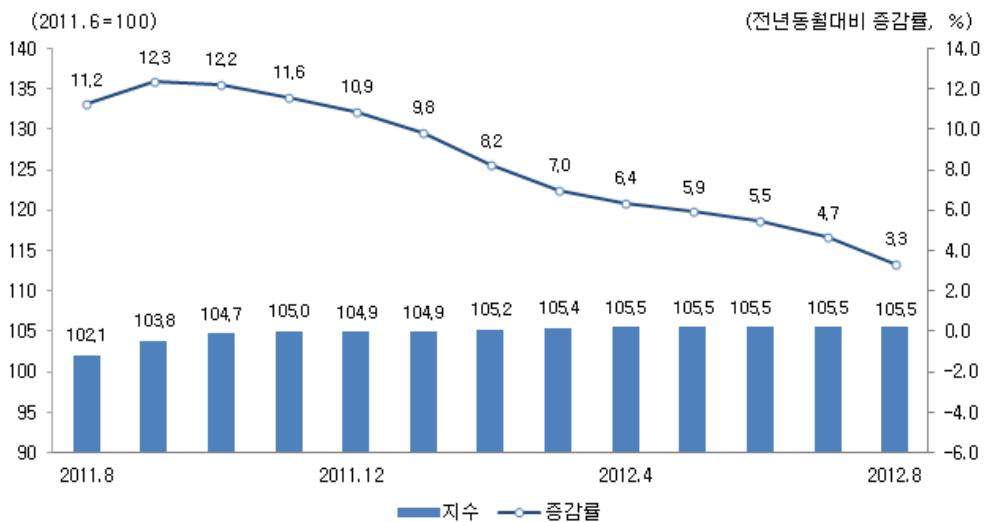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은 상승률 둔화되면서 4개월 연속 보합세

■ 서울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보합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경기침체로 예년에 비해 이동수요가 급감하면서 4개월 연속 보합
-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전월대비 보합한 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0.1% 상승

■ 전국의 8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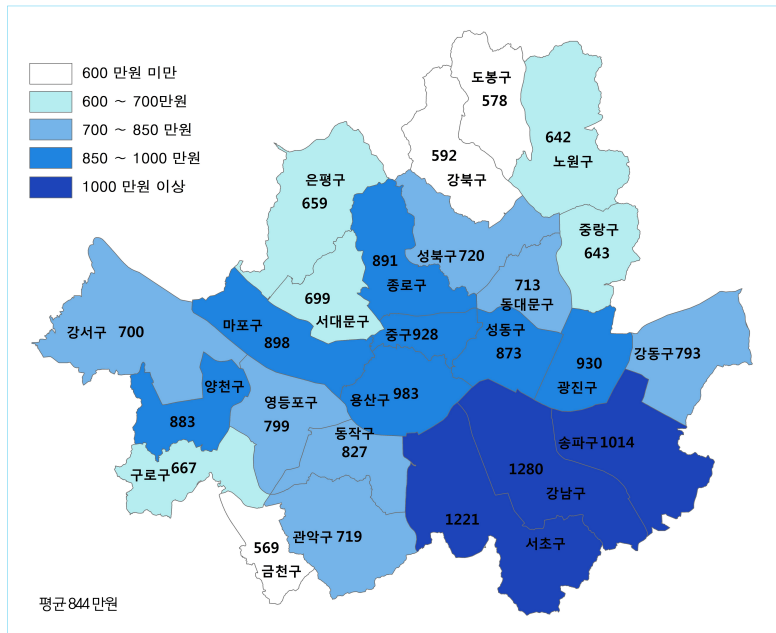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여름철 비수기영향으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어 전월대비 0.1% 상승
- 수도권은 4개월만에 전월대비 0.1% 상승하였고 광역시와 기타지방은 전월대비 각각 0.1%, 0.2% 상승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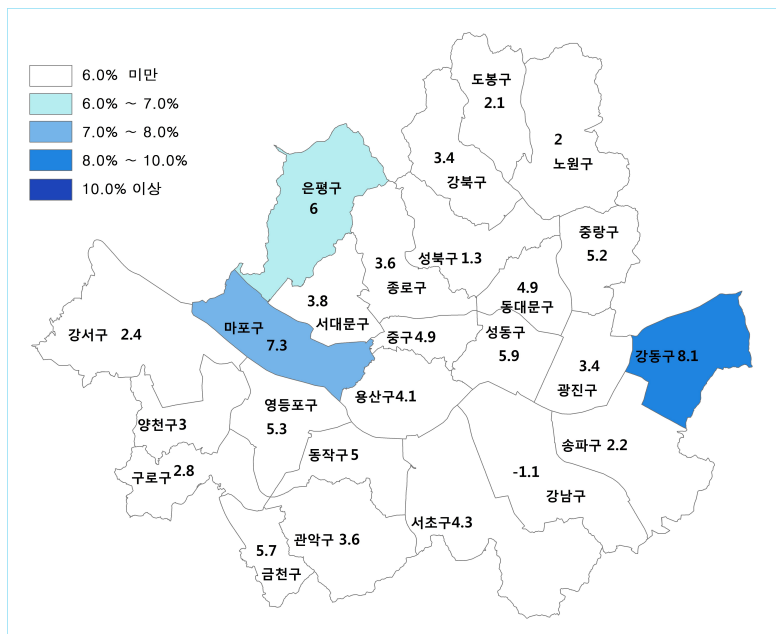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강북지역은 종로구와 마포구 등에서 상승하고 서대문구, 광진구 등에서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0.1% 상승**
 - 종로구는 도심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전세수요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2% 상승
 - 서대문구는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입주를 앞두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남가좌동, 북가좌동을 중심으로 기존 단지 물량이 적체되면 전월대비 0.2% 하락
- **강남지역은 송파구, 관악구 등에서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 강남구에서 하락하며 전월대비 보합**
 - 송파구는 가락시영 재건축 이주로 임차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신혼부부 수요도 증가하며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3% 상승
 - 강남구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낙폭을 줄인 모습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진입 수요가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적체 물량 해소가 어려워 전월대비 0.1% 하락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8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평균 845.8만원으로 전월대비(843.6만원) 소폭 증가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1,280만원), 서초구(1,221만원), 송파구(1,014만원), 용산구(983만원), 광진구(930만원), 중구(928만원), 마포구(898만원), 종로구(891만원), 양천구(883만원), 성동구(87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전세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569만원), 도봉구(578만원), 강북구(592만원), 노원구(64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자료 : 부동산 114

〈그림〉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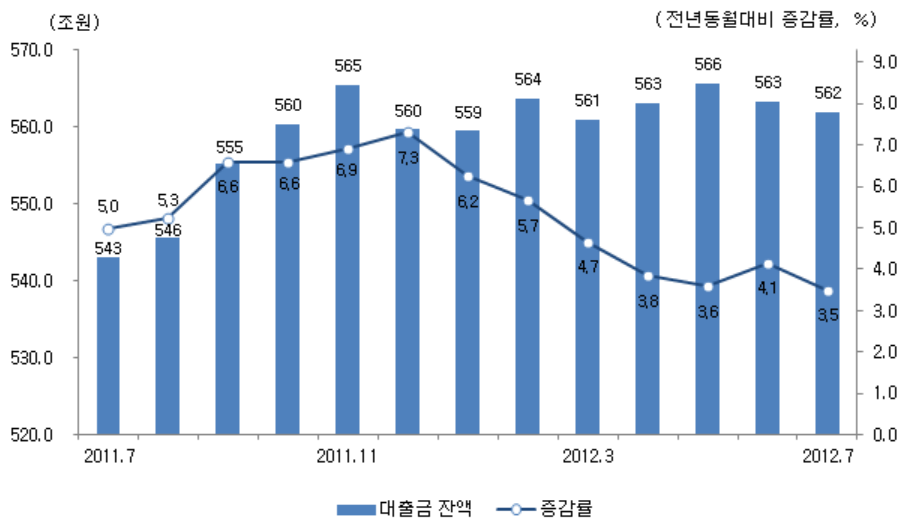
서울의 7월 은행의 전체 대출금 전월대비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 증가

■ 7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

- 7월 중 서울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561조 9,625억 원 규모로 전월대비 1조 2,727억원(0.23%) 감소
- 전체 대출금 잔액 중 예금은행은 454조 5,433억원 규모, 비예금은행은 107조 4219억 원 규모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9%, 6.1% 증가

■ 7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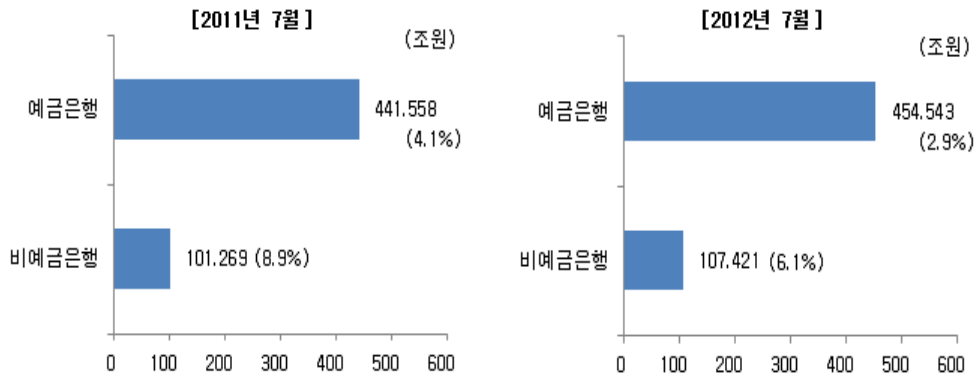
- 7월 중 전국 금융기관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1,432조 9,071억원으로 전월대비 1조 5,412억원(0.11%) 소폭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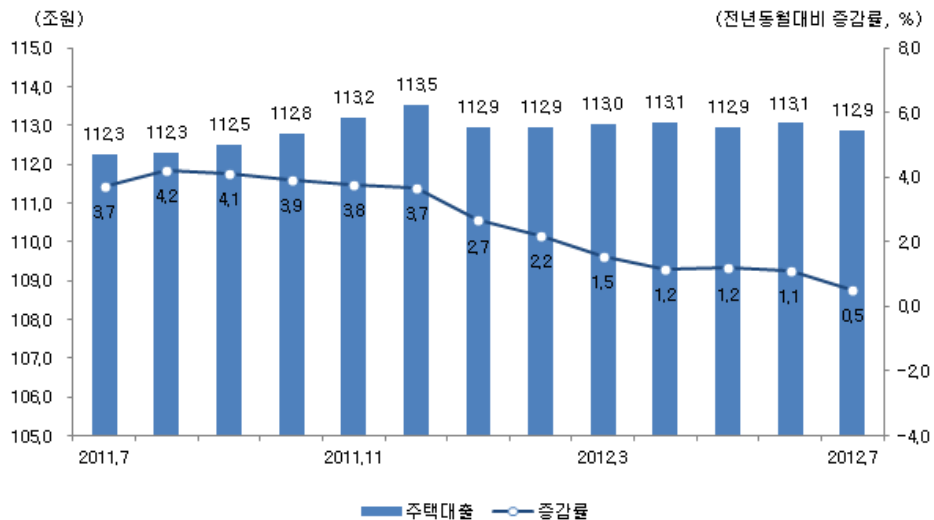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7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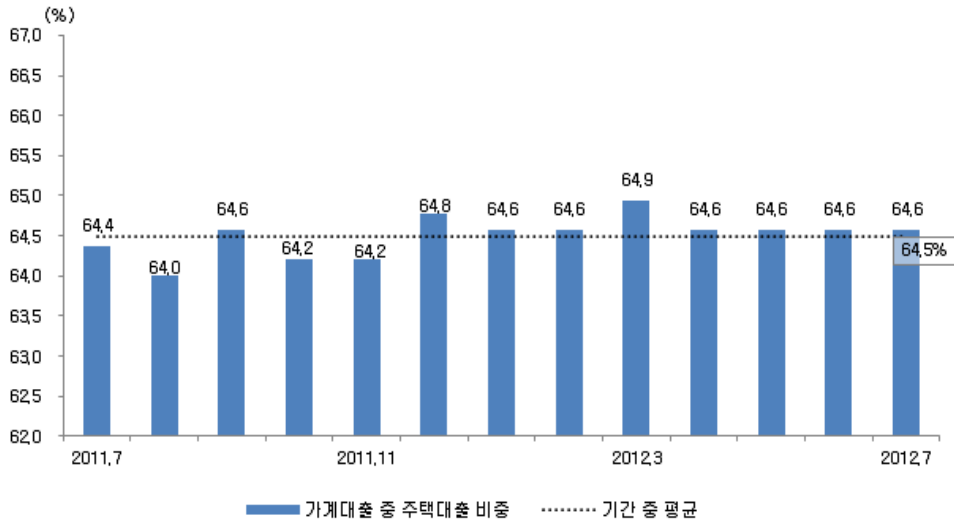
- 7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175조 424억원으로 전월대비 131억원(0.1%) 증가하였고 그 중 주택대출은 112조 853억원(64.6%)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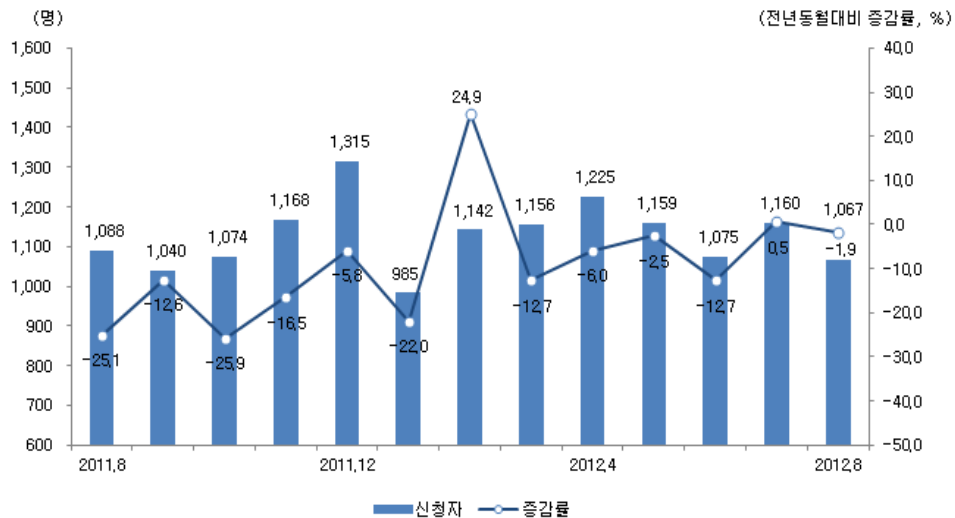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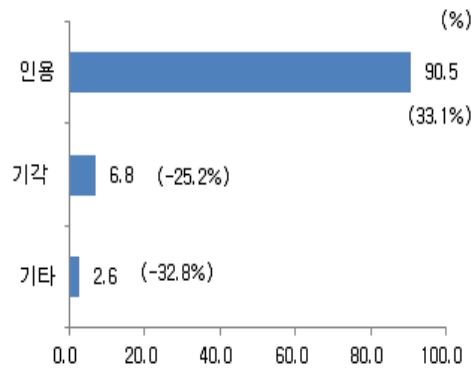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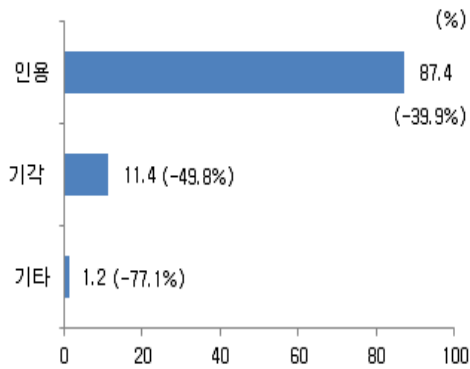
■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 8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1,067명으로 전월대비 8.0%, 전년동월대비 1.9%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은 11.4%로 전년동월대비 49.8% 감소하였고 면책 기각률도 6.8%로 전년동월대비 25.2% 감소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주 : 인용은 정당하다고 인정, 기각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대법원

<그림> 8월 개인파산 선고전 처리현황

<그림> 8월 면책 처리현황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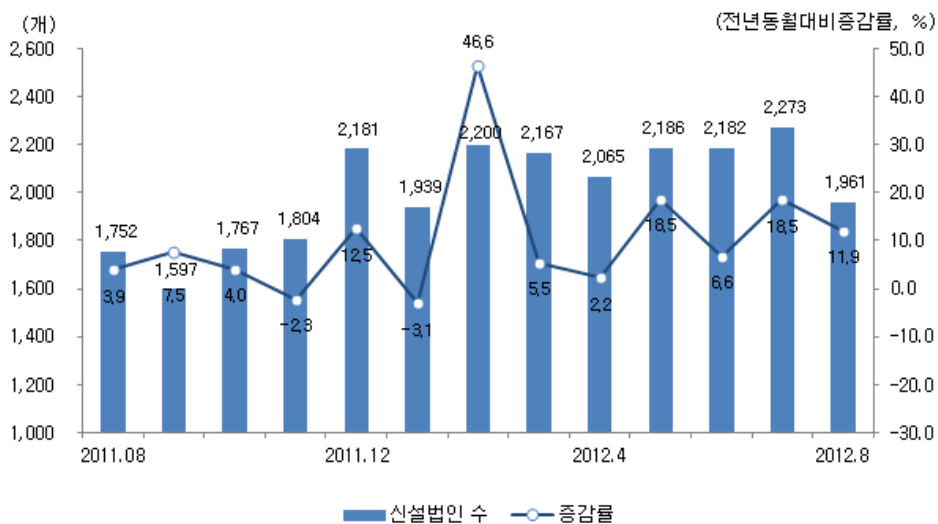
서울의 8월 부도법인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8월 신설법인 수 모든 업종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961개로 전월대비 4.2%(312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1.9%(209개)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25.9%(89개)로 감소하였고 서비스업과 건설 및 설비업도 전월대비 각각 11.6%(8개), 6.5%(207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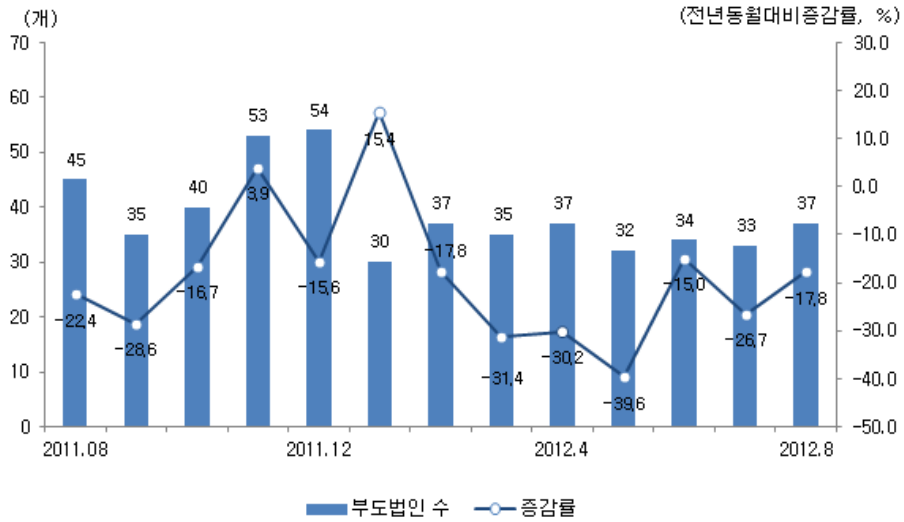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 중심으로 전월대비 증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7개로 전월대비 12.1%(4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7.8%(8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83.3%(5개), 10.0%(1개)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23.5%(4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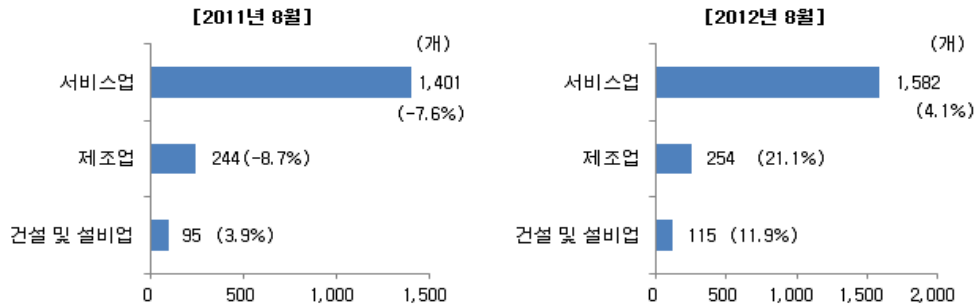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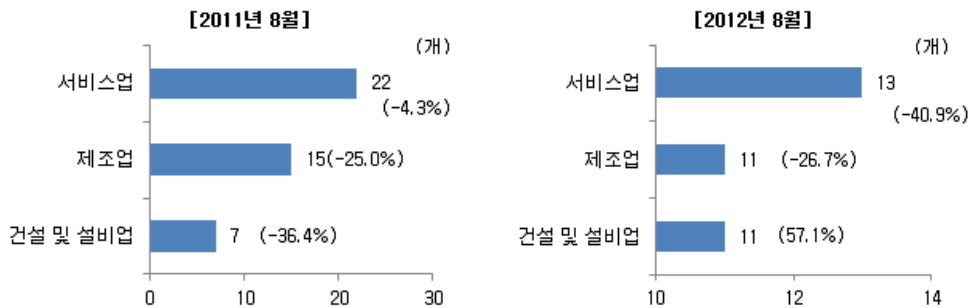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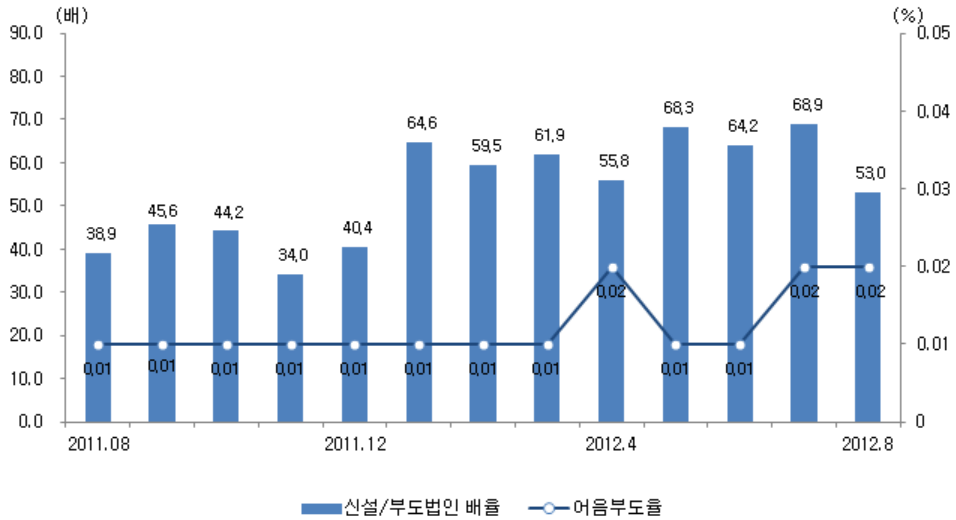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8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3.0배로 전월(68.9배)보다 감소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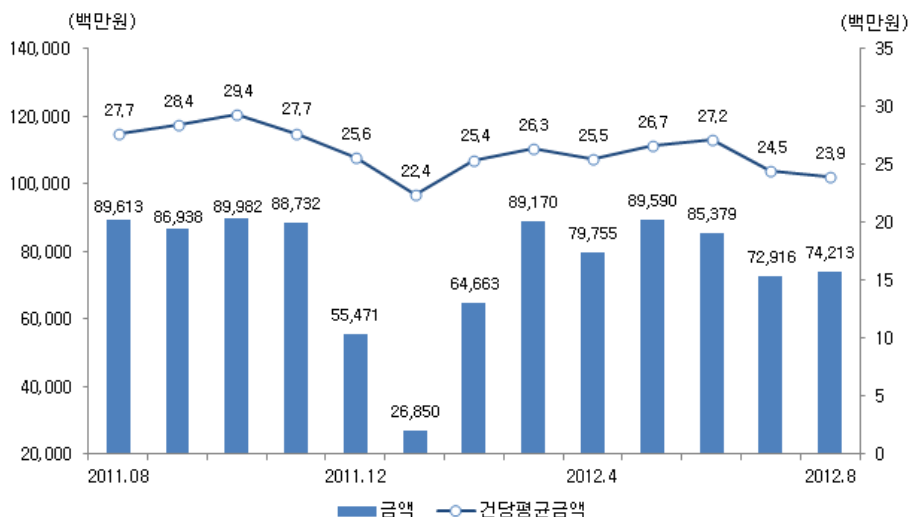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서울의 8월 신용보증 건당 평균금액 2개월 연속 감소

■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전월대비 감소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3,101건, 74,213백만원으로 전월대비 보증건수와 보증금액은 각각 4.1%, 1.8% 증가하였고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2.4% 감소
- 전년동월대비 보증지원 건수는 4.2% 감소하였고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금액도 각각 17.2%, 13.7% 감소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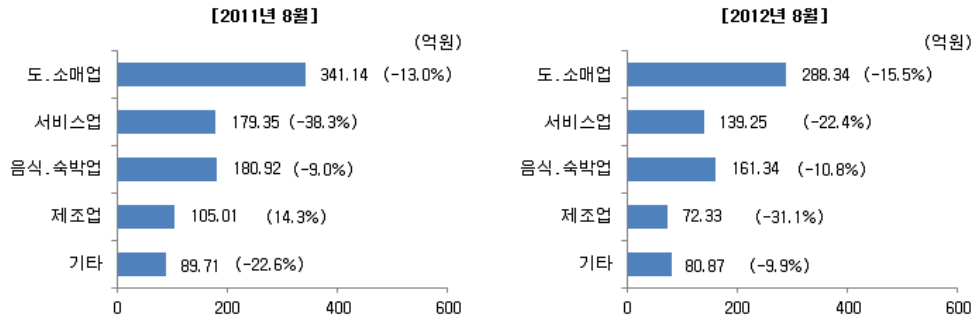
■ 도·소매업종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8월중에 도·소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38.9%로 전월(35.9%) 대비 3%p 증가한 반면, 음식·숙박업종에 대한 지원은 21.7%로 전월(23.4%) 대비 1.7%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도소매업종은 37.0%로 전월(34.9%)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음식·숙박업종은 22.2%로 전월(24.8%)대비 2.6%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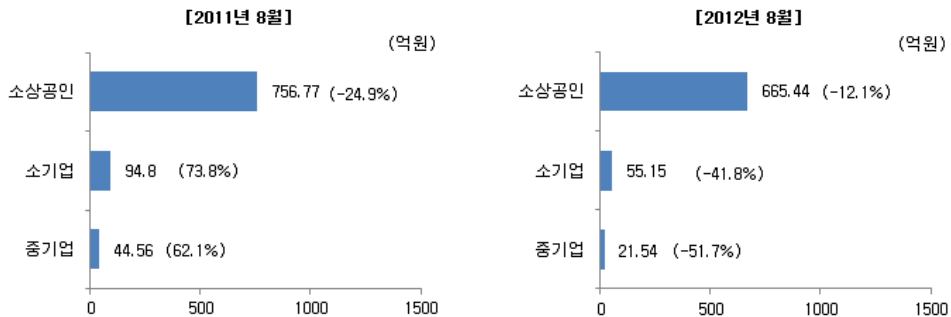
■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증가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9.7%로 전월대비 1.6%p 증가하고 건수기준으로는 94.3%로 전월대비 0.5%p 증가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4%로 전월대비 1.4%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4.2%로 전월대비 0.1%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9%로 전월대비 0.2%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5%로 전월대비 0.6%p 감소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 수 · 출 · 입 · 동 · 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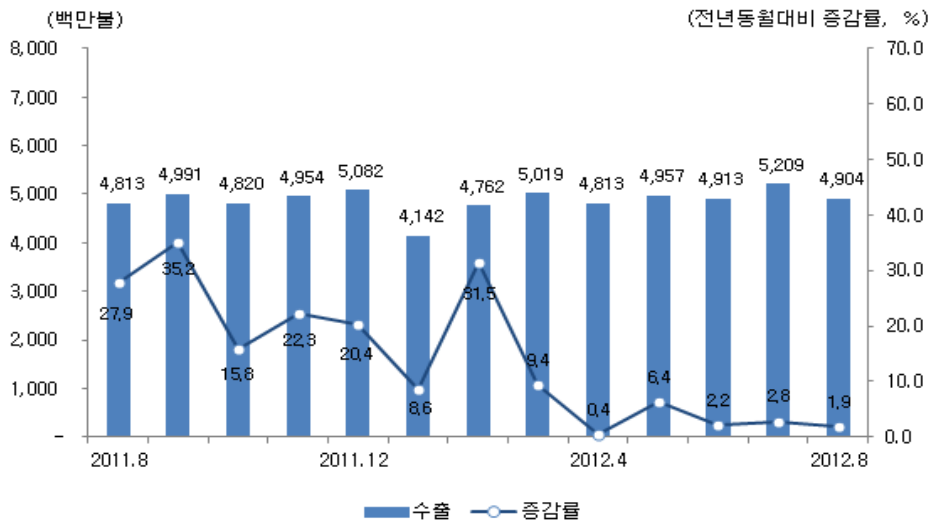
서울의 8월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8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9.0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반면 수입은 96.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5.5% 감소
- 전국의 수출은 430.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0% 감소하였고 수입은 409.3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9.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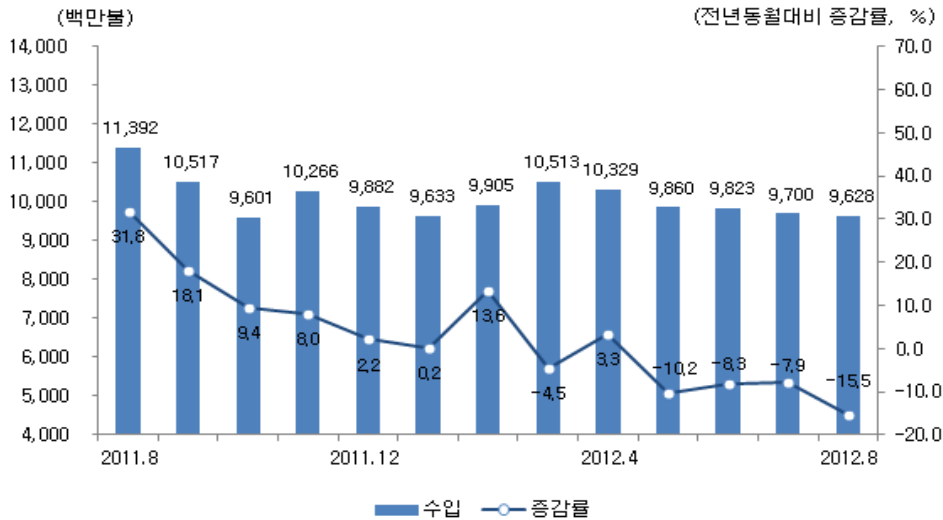
■ 서울의 8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668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904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컴퓨터, 자동차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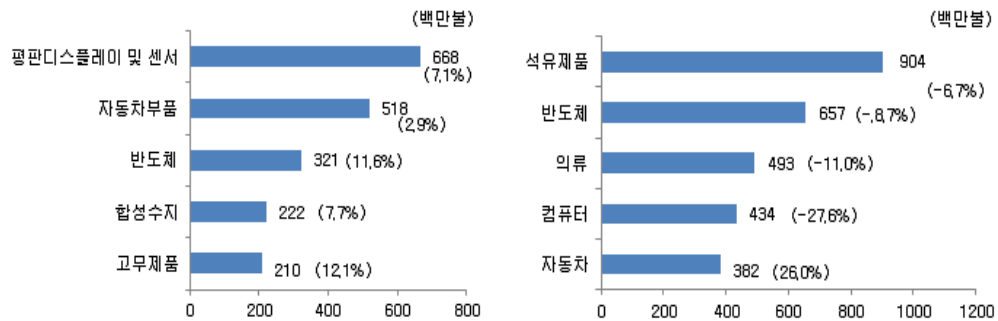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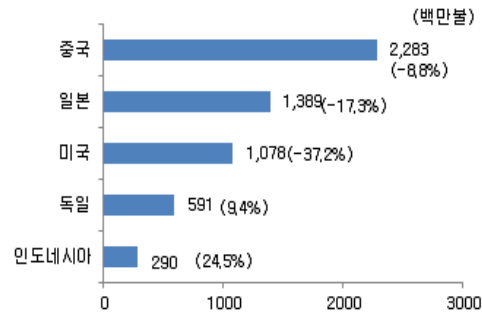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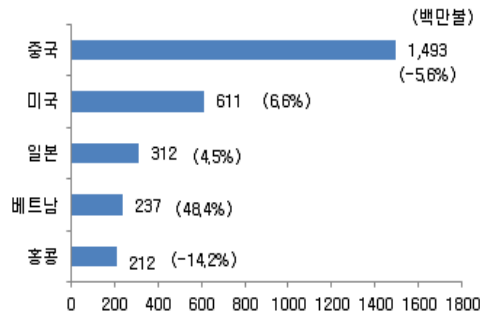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8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한 1,493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한 2,28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순



주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자료 : 무역협회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8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 서울의 8월 주요 FTA 대상국 수출 1순위 품목은 미국의 자동차부품

- 미국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 부품이 151백만불, 수입은 우라늄이 62백만불로 높은 수치를 기록
- 칠레의 경우 자동차 2백만불 수출, 동제품 25백만불 수입하였고 페루는 합성수지 1백만불 수출, 금은 및 백금 3백만불 수입 기록
- 싱가포르의 경우 수출입 모두 반도체가 17백만불, 12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인도의 경우 합성고무 20백만불 수출, 석유제품 163백만불 수입 기록

〈표〉 8월 주요 FTA 대상국별 서울시 수출입 품목

(전년동기대비)

구분	순위	품목명	수출		품목명	수입	
			천불	증가율		천불	증가율
미국		합계	610,896	6.6	합계	1,077,581	-37.2
	1	자동차부품	151,996	19	우라늄	62,085	169.4
	2	고무제품	78,354	21.1	농약및의약품	56,807	6.9
	3	무선통신기기	60,561	-11.9	육류	56,754	-27.6
칠레		합계	8,911	-19.8	합계	55,724	-9.4
	1	자동차	2,187	-25.2	동제품	23,820	-10.5
	2	고무제품	1,927	11.1	육류	10,089	-3.0
	3	합성수지	983	36.2	제지원료	4,195	-36.9
페루		합계	5,232	-20.2	합계	9,753	198.1
	1	합성수지	1,353	-16.0	금은및백금	3,535	134.5
	2	합성고무	720	-20.6	기타금속광물	2,453	-
	3	고무제품	457	-3.1	동광	677	-
싱가포르		합계	65,192	13.7	합계	268,479	-1.9
	1	반도체	17,653	-18.8	반도체	123,739	40.7
	2	평판디스플레이 및센서	4,075	501.8	컴퓨터	26,925	-15.9
	3	컴퓨터	3,802	30.2	석유제품	22,821	-61.3
인도		합계	98,890	-18.1	합계	244,933	-28
	1	합성고무	20,662	-27.6	석유제품	163,943	-28.7
	2	합성수지	14,093	-18.2	기초유분	15,378	-50.0
	3	자동차부품	12,563	-22.3	곡실류	9,701	13.6